

## 하나님의 전쟁 (여호수아 8:1-17)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우리가 잘 아는대로 아이성 전투에 대한 이야기이다. 여리고 전투에서는 완전 승리했는데, 아이성은 조그만한데도 실패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전쟁 붙어서 많이 죽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답을 주셔서 그 문제를 제거하고 난 후에 승리한 장면이다. 중요한 답이 우리에게 되기를 바란다.

중요한 것, 늘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은 약속대로 한다는 것이다. 약속을 잘 알면 끝이다. 아주 쉽다. 약속대로 무조건 하신다. 그리고 아무도 못 막는다. 반드시 되어진다. 그러면 답 난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안 살아서 문제이다. 나를 고쳐버리면 된다. 잘 안되기 때문에 기도를 주신 것이다.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기도, 이유가 뱀이니까. 어떤 사람, 어떤 상황도 이 상황을 막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 된다. 이 약속이 말씀 안에 있으므로. 너무 쉽다. 험년들 미래가 불안하다.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면서 정리하고 그것을 언약으로 잡고 살아간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 안살아봐서 그게 아니다. 그 불안한 미래에 대한 답이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신다. 이 약속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 말씀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안에 각인이 되어 버리면 그게 나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계속 적으로 증거하고 있다. 요셉은 노예였다. 노예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총리되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이다. 어느날 우리가 이민 와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면 이건 보통일이 아니다. 다니엘은 포로였다. 그런데 자기가 살아 있던 동안 섬기던 모든 왕의 왕이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다고 성경은 설명하는가? 요셉은 내가 준 꿈이 자기에게 언약이 된 것이다. 다니엘은 내가 준 그 말씀이 그에게 언약이 되어 거기에 대해 뜻을 정해버렸다. 누가 뭐라해도 말 안듣는다. 언약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사자굴에 가도 관창은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신다. 우리가 잘 아는대로 라합은 기생이다. 창녀인 것이다. 험한 인생을 살았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상관 없다는 것이다. 험한 인생이어도 말씀대로 언약 잡으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기생 라합 하나 밖에 없다. 짐승도 다 죽는데 자기 가문의 모든 사람을 살렸다. 시집을 갔으면 시댁도 살리는데, 기생이라서 시집을 못가니.. 놀라운 일이다. 한나는 아들을 얻지 못했으면 나는 인생 저주 받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언약이 되어 버리니까 자기 가정 뿐 아니라 시대를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 그 이후에 삼남이더 더 낳았다. 복에 복을 더 해주신 것이다. 우리 루터라는 여자도 안다. 이방인이다. 그런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였다. 남편도 죽고 다 죽어서 여자 세명만 남았다. 자기 동서는 자기 민족으로 돌아갔다. 성경에 표현하기를 자기 신에게 돌아갔다고 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도 가라고 했는데, 한번 말한게 아니라 계속 말했다. 남편이 없으니 계속 가라고 하였다. 그런데 루터가 어느날 시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더 이상 그런말 하지 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라고 말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것이니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남편도 없이 남의 나라 산다는 것은 대단한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미 답이 나고 뜻을 정했다는 것이다. 나는 이미 끝났으니 나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나중에 이 루터가 기생 라합의 며느리가 되었다.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무슨 포럼이 있었겠는가? 평생? 참 놀라운 일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약속대로 하고 내 약속대로 막을 자가 없으니까 약속을 잡고 살라는 것 아닌가? 그 약속을 계속 고백하고 각인을 해라. 그냥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인 해서 그게 너의 인생에 자동으로 나타나게 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을 정복해버려라. 놀라워서 말고. 그러라고 문제를 주는 거야. 그 답이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가 말씀 안에 있으니까 이것을 고백하라는 것이다. 혹시 처음 교회 온 분도 계시는 것이다. 오신지 얼마 안되서 이런 말이 잘 이해 안되는 분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상관 없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시니까 약속을 마음에 각인해야 한다. 성경 전체가 말하기를 내 약속은 그리스도다, 이 안에 내 모든 약속이 성경 안에 다 들어 있다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를 매일 언약으로 잡고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너의 문제를 해결한다. 저절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문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 아니라, 문제만을 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박살낼 그리스도를 잡아라. 그러면 내가 왜 십자가에 죽었나? 안그러면 이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믿는 사람들 많이 있다. 나는 죄 사함을 믿는다. 그런데 믿고 끝나게 아니라 그것으로 죽을때까지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답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지를 않는다. 믿는다는 믿는데, 어떻게 사는가? 살고 싶은 사람 많은데 잘 안되니까 각인하고 고백하라는 것이다. 어느날 들어와서 진짜 답이 되고 발견되면서 내가 스스로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은 살았다는 것이다. 정확하게 극단적으로 말하면 세상에 살아 있는 것은 말씀 뿐이다. 그 나머지는 다 죽었다. 왜 그런가? 답이 안되니까. 인간이 답이 되는가? 돈이 답이 되는가? 안된다. 안되는경우가 너무 많다. 그런데 모든 부분에 답이 다 되고 아무도 못 막는 것,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그것이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하는 것이다. 이 전쟁을 하는데 아간이 실수를 한

것이다 우리도 이 전쟁이다. 여기에 답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다. 인생 미래, 하나님이 다 전쟁으로 해결해주는 것이다.

### 1. 하나님의 전쟁

얼마전에 여호수아 5장 봤다. 이제 요단강 통과해서 가나안 땅 들어왔다. 남은 것은 전쟁하는 것이다. 그런데 군사 훈련대신 하나님은 할례 받으라고 했다. 그 다음에는 유월절 지키게 했다. 이것은 언약전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 나타났다. 여호수아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이것은 내 전쟁이야. 내가 행해. 너 앞서서 나와 행할거야. 너는 언약을 잡아라. 그것이 메시지이다. 이 하나님의 전쟁은 완전 전쟁이다. 절대 지는 일이 없다. 완전하게 승리하는 전쟁이다. 이 표본으로 보여준 것이 여리고 전쟁이다. 완전 정복, 완전 승리. 그리고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그래서 완전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고 언약 전쟁이고 영적 전쟁이다. 니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다. 여리고 전쟁에서는 사람 뿐 아니라 짐승도 다 죽이라고 했다. 금은동철 그런 것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다. 그들이 우상숭배를 너무나 했기 때문에 싹 쏘여 버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놀라운 전쟁에서 이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언약에 배신을 했다. 명령을 어긴 것이다. 하나님의 목표는 완전전쟁인데, 이것을 깨뜨려버린 것이다. 7장 21절에 보면 외투 한 벌과 금덩이를 탐내서 가졌다는 것이다. 여리고 성 같은 곳에서도 완전히 이겼는데, 조그만 아이성에서 가서 여호수아가 패닉에 빠졌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누가 내 언약을 어겼다.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별로 다 모였다. 그리고 그 지파의 가족들까지 다 나오게 해서 결국 아간이 걸렸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딱 짚어 내셨다. 너지? 그러니 고백한 것이다. 그래서 7장 2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기록들이 나온다. 아간과 도둑질한 물건, 아들과 딸, 그의 동물들 다 돌로 치고 거기에 돌 무더기를 쌓았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짐승들이야 돌 맞아 죽든지 말든지 상관 없었지만, 아버지 죄를 지었으면 아버지만 죽은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죽어 버렸다. 부모가 잘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 아니겠는가? 이 일리는 지금도 영적으로 다 살아 있다. 부모 이상하면 자식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부모를 보려면 자식을 보라는 말이 있다. 부모가 그리스도가 50% 밖에 안되면 자식도 당연히 그렇게 밖에 안 된다. 잘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맹렬한 진노를 하셨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아간의 모든 가족과, 훔쳤던 물건 외에 자기가 가진 물건 다 모아서 돌 던져서 무더기 만들어 버렸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그쳤다고 하셨다. 그리고 그곳을 아골골짜기라고 하였다. 어려움이라는 뜻이다. 찬송가에도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 맹렬한 진노를 하셨다는 것은 아간의 잘못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전쟁을 방해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 땅에 우상숭배한 사람들을 다 쏘여 버리고 완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원했다. 참 언약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는데 아간이 대적한 것이다. 이것을 위한 첫 번째 전쟁, 아이 전쟁에서 아간이 실수한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가나안 전쟁의 표본 전쟁인데, 여기에서 실수가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의 전쟁은 완전전쟁이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잡으면 완전히 내 인생을 정복할 수 있다. 문제가 올 때에는 문제지만 다음 단계의 언약을 잡고 통과 하면 완전 정복하는 답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런 답은 하나 뿐이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다. 그래서 사실은 산 것은 하나 뿐이다. 말씀. 그거다. 말씀으로 하는 전쟁이다. 이것은 언약 전쟁이다. 언약계만 따라가면 그 성이 무너진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언약계를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언약계를 안 따라가고 다른 것을 따라가면 안되는 것이다. 말씀으로 하는 전쟁인데, 그 말씀을 안 따라가면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 아간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안했다. 말씀 안 따라갔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 도둑질한 것 뿐 만 아니라 아이들도 죽고 동물도 죽고 다 끝나버렸다. 만일 말씀 지키고 언약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상상하지 못한 것을 두배, 네배로 받게 되는 것이다.

이 일한 게데스 바네아의 사건과 같다.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못 간다고 밤새 울었다. 그것도 한번이 아니라 밤새도록 울었다. 그 정열이 있으면 밤새 기도를 했으면 뒤집어 졌을 것인데,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다.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한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선택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가나안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가는 것이다. 아무도 못 막는다. 세계 복음화, 아무도 못 막는다. 가나안 땅에 가기만 하면 복을 받듯이 세계 복음화 하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기까지 기다리는 것을 선택했다. 2세를 낳아야 하니까. 이렇게 해서 언약을 어긴 사단의 통로 아간이 제거되었다. 그래서 다시 아이성 전쟁을 시작했다. 하나님의 완전 전투였다. 본문 2절 마지막에 보면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고 하였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이야기이다. 그 다음절 보면 한 3만명을 뒤에 숨겨 두었다. 그리고 15절 보면 전쟁을 시작하면 일부러 패해서 도망하는 것같이 광야로 도망가라고 했다. 그러면 아이성이 또 이기는 줄 알고 그들을 따라서 나오게 되어 있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그래서 17절에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않은 사람이 없고 성문을 열어놓고 따라갔다는 것이다. 워래 군대가 다 나가도 보초 정도는 남겨두게 되어 있다. 보초도 없다. 다 따라갔다. 그것도 성문 열어 놓고. 이런 것은 군대에서 이런 것하면 그 다음날 바로 영창이다. 저는 ROTC해서 계급이 조금 높다. 이런 일 생기면 바로 영창이다. 감옥.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니가 문 열어 놓고 다 나가버렸다. 그러면 복병은 아무 저항 없이 들어가서 가서 불 놔 버려서 완전 다 태워버렸다. 이렇게 해서 완전 정복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다. 이게 내 전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적군들은 거기에 속을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언약을 잡으면 사단은 속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하는데, 사단이 무슨 힘이 있는가? 사단도 피조물에 불과하다. 우리 인생도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향하여 가는 영적 전쟁이다. 그러면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 말씀을 거역해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아간처럼. 우리는 다 은혜로 산다. 너무나 감사하지만 누구 한테나 주는 그 은혜로는 안된다. 그것만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복음을 줬다. 그러면 누구나 받는 그 은혜에 만족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보다 더 큰 은혜와 증거를 받는게 어렵나 하면 아니다. 간단하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 않으면 된다. 언약을 다 모은 것이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어기지 않으면 된다. 결과는 하나님에게 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다. 나는 출발을 잘 하면 된다. 아간처럼 하면 안된다. 여호수아처럼 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거기에 내 인생을 드리면 더 큰 축복이 일어나고 정복하게 된다. 아간처럼 자기거 챙기려고 하면 죽는다. 가족이 다 죽는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잘 안된다. 나도 그랬다. 여기에 대한 답이 뭔가? 원인이 뭔가? 답은 그리스도고 원인은 사단이다. 그러면 내게 있는 것을 다 드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야 한다. 대부분 성도들이 내 마음을 못 드러낸다. 그게 돈드는 것도 아니고 당연하고 간단한테, 잘 안된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늘 내가 받을만한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기도에 들어오지를 않는다. 영적 문제 아닌가? 고쳐야 안되겠는가? 이렇게 살면 내가 손해이다. 하나님은 손해 안본다.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렇습니까? 왜 이게 안되냐? 그 답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계속 베드로처럼 고백하라.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사단이 계속 깨지는 것을 통해 어느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게 된다. 돈은 여전히 남아 있다. 돈 내나라가 아니라 마음을 내나라. 그러면 그 돈을 전에는 나만을 위해 쓰다가 하나님을 위해서도 쓰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 때 감사가 나온다. 헌금할 때 감사하다. 전에는 벌벌 떨었다. 나도 그랬다. 나는 병이 있어서 교회에 갔기 때문에 그달부터 주일날 문을 닫았다. 약국은 주일날 문을 닫는데, 당번이 있어서 한달에 한번은 문을 열어야 하지만 반장에게 안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십일조 했다. 그 달부터 했다. 왜냐하면 내가 병이 있어서 세상에 답이 없으니까. 여하튼 뭐가 나와야 하고 그게 아니면 죽어야 했다. 그래서 한번씩 십일조, 매주 하는데, 매상 계산해서 십일조 떼는데 하루는 땀이 나는 것이었다. 이걸 다 주고 내가 어떻게? 땀이 나는 것이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다. 그런데 그것은 속은 것이다. 사단이 주는 땀이다. 그걸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쩌피 해야 되는 헌금인데,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땀이 나는 것이다. 그 때 하나님이 많이 고쳐줬다. 그러면 감사해야 하는데, 세상에 답이 없어 죽을라는 인간이. 그래서 사단의 땀을 계속 흘려서 되겠는가? 이 땀의 머리를 박살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 고백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은혜가 된다. 조금 지나 가면 은혜가 안된다. 그 다음부터는 뭐로 은혜 받나? 그렇게 계속 하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 그것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다. 내가 잘했다. 바른 길 가고 있다. 그래서 더더욱 감사하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을까? 그렇게 사는 것이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답이라고 말을 하셨다. 하나님이 답이라 했으면 무조건 잡아야 한다. 우리가 뭘 아는가? 핵심은 내가 언약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인가에 달려 있다. 그리스도가 언약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정상이다.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된 것이다. 무슨 준비인가? 전쟁할 준비이다. 정복할 준비가 되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있기 바란다. 진짜 마음에 담고 잊지 말아라. 집에 가면 읽는다.

## 2. 기도

복음을 가진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기도의 축복이 있다. 복음을 누리고 증인되는데, 기도는 참으로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참 갈등이 많다. 고민이 많고. 이유는 더 잘하고 싶어서 그런거니까 참 귀한 것이다. 그 기도를 통해 깊이 기도도 되고 평안도 얻고 평안도 얻고 응답도 받는 것은 정상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해서 더 큰 증인, 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인 소원이다. 그런데 이것이 내 경험으로 보면 잘 안된다. 특히 복음을 알고 나서는 사단이 훨씬더 기도를 방해한다. 전에는 기도 하면 그래도 좀 했다. 하다가 잠이 오고 갑생각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렇지, 복음을 알고 나서 기도하려고 하면 혀를 볼드는 것같다. 생각이 안난다. 그래서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기도는 중요하다. 복음을 아는 것이 답이다. 복음이 답인데, 복

음 안에서 왜 영적 문제가 일어나나? 거기에 대한 답이 뭔가? 기도이다. 집에 가서 새로 보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그런데 기도만 잘되면 되는데, 내 맘대로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되는 기도, 진짜 되는 기도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할 것 몇가지가 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언약으로 잡기 바란다.

기본적으로 기도는 구하는 것이다. 성령충만도 성령충만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기도 이전에 근본적으로 해야 할 기도가 있는데, 그게 약속의 말씀을 믿는 기도이다. 기도 시간에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응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시는 것을 항상 약속한대로 하신다. 먼저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하신다.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내가 참신이다. 누가 나처럼 할수 있는 신 있으면 나와봐? 어디가서 점쟁이에게 들었는데 그게 그대로 되면 일단 확률적으로 50대 50이다. 무슨 말이나면 나도 50프로 맞출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일든지 하나님이 허락 안하면 안된다. 귀신이 뭐라 말해도 하나님이 허락 안하면 안된다. 그리고 약속대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철회하지 하는 것이다. 니가 신이야? 한번 해봐. 못할 것이다. 내가 안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말씀으로, 약속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 그냥 말씀이 아니다. 거기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 그러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냥 응답, 역사만 받으려 하고 말씀은 저 밑에 놔 두면 안된다. 그 말씀을 계속 고백해야 한다. 특히 그리스도와 관련된 말씀을 고백해서 내게 각인이 되게 해야 한다. 그 말씀이 한마디라도 내게 들어오면 우리는 중대한 준비가 다 되어 진 것이다. 앞으로는 그 말씀을 성취하는 방법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갈 것이다. 이것이 언약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그것을 그대로 하시기 때문에 말씀은 살았고 라고 하시는 것이다.

두 번째 깊은 기도를 위해 확인할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세가지 약속 주셨다. 이 세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다. 이 세가지의 약속은 우리 인생 전체를 정복하고 세계 복음화 할수 있는 언약의 말씀이다. 너의 인생을 아무도 손대지 못할 반석위에 세워진 교회로 만들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는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니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한. 그리고 내가 열쇠 주겠다. 이것은 천국의 열쇠, 인생의 열쇠이다. 이 열쇠로 다른 사람의 인생도 열수 있다. 그 열쇠가 나야. 그것이 메시지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이 세가지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굉장한 메시지이다. 이 원리는 지금도 유효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기도로 가는 두 번째 확인할 것, 매일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기도제목의 근본 바탕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될 것, 더 깊은 기도를 위해 확인할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내 기도 안해도 응답 된다. 그것이 마태복음 6:33이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라고 하면 내 기도제목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잡고 기도 잘 안한다. 그리스도 고백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런 생각 잘 없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기도제목으로 되어 있는 사람 많지 않다. 그래서 하는 기도가 전부 내 기도 뿐이다. 그리고 나서 운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이 내 기도 제목이 되어 그것을 위해 올 정도면 상당한 축복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되어져 있는 분들은 계속 그 기도 하라. 그러면 내 기도제목은 전혀 안하냐 하면 그것은 아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 고백,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고 그래도 계속 문제가 오기 때문에 개인 기도제목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런데 전에는 내 개인 기도제목이 1번이었는데, 지금은 일일이 아니고 2번이다. 그리고 주시면 하고 안주시면 안하고 그런 마음이다. 어쩌다 문제가 생각나면 간단하게 짧게 해도 깊이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 때문에 인생을 정복하고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 사단의 권세를 끊는 것이다. 원인은 사단이니까. 결국 하나님의 소원, 그리스도 이 고백이 계속 되어지는 중에 24 가계 될 것이다.

아무튼 우리 인생은 전쟁이다. 그냥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고 언약 전쟁이다. 그리고 영적 전쟁이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믿는 것만 해도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다. 거기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그건 이미 정해져 있고 아무도 손 못 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는 것이다. 그리고 계속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쟁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다. 내 약속이야. 너를 저주에서 건지는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약속이야, 그걸 가지고 니 인생을 내가 살아갈 약속이야. 나의 십자가의 보혈을 약속으로 잡아라.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이렇게 되기 바란다. 그러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다. 증인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는다.